

“모두가 행복한 이타적 복지세상 성북장애인복지관이 선도합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옹호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이웃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된 이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애당사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인권을 존중해주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2018년도부터 **웅심**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간 **웅심**이를 양성하며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웅심**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차년도 지원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시민옹호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은 주민을 위해, 더불어 지속적인 시민옹호활동을 이어가기위해 ‘주민들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뉴얼에는 응심이의 생생한 활동이야기와 다양한 전문지식, 활동하는 방법 등 많은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은 성북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노력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닌 시민옹호활동가로 활동한 응심이 15명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더불어 응심이라는 사업이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시복지재단과 매뉴얼 자문을 담당하신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님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본 매뉴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장애인복지관 응심이가 지역사회를 옹호활동으로 가득 채워나가길 바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새로운 응심이의 참여를 통해 성북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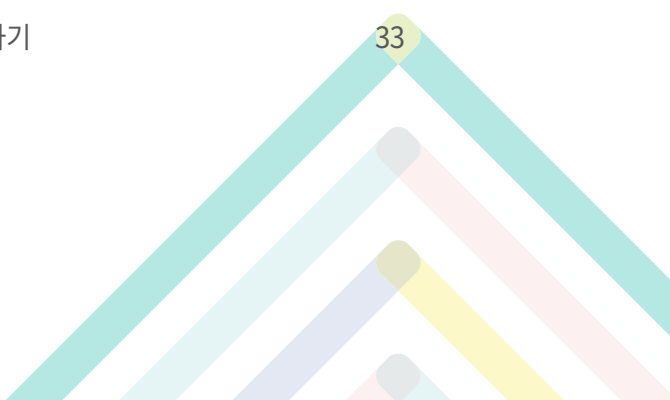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진우**

목차

I. 옹심으로 시작하기	06
1) 옹심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07
2) 옹호는 무슨 뜻일까요?	08
3) 옹심이는 누가 활동하나요?	08
4) 우리 동네에 옹심이가 왜 필요할까요?	09
5) 어떻게 옹심이가 되고 활동하나요?	12
6) 옹심이는 짝공과 어떤 활동을 하나요?	13
7) 옹심이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까요?	15
II. 옹심으로 성장하기	16
1) 권익옹호란?	18
2) 옹호 활동을 위한 관련 법률 이해	26
3) 장애바로알기	30
4) 발달장애 이해하기	33



III. 응심으로 활동하기	36
1) 활동계획 세우기	37
2) 활동일지 작성법	38
3) 옹호활동하기	40
4) 활동 사례	41
5) 옹호 사례	46
6) 옹호를 통한 변화	47
7) 응심이의 다양한 활동	48
8) 응심이에게 묻다(Q&A)	50
9) 짝꿍에게 묻다(Q&A)	52
IV. 참고자료	53
1) 스몰스파크 소개	54
2) 응심이 ↔ 스몰스파크 연계 사례	56
3) 장애인 학대신고	57
4) 응심이 활동일지	60
5) 응심이 참여신청서	61



I

옹심이로 시작하기

‘옹심이’란 어떤 활동인지
함께 알아보까요?

I. 응심으로 시작하기

1) 응심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응심이’란 장애인의 권익을 ‘응’호하는
마음‘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를 칭하는 명칭입니다.

장애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장애인의 이웃이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
취미, 여가를 함께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동네주민을 ‘응심이’라고 합니다.



2) 옹호는 무슨 뜻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옹호란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옹심이의 옹호활동은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응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3) 옹심이는 누가 활동하나요?

장애에 관심이 많고 우리 동네에 장애당사자와 함께 활동하길 원하며 장애인과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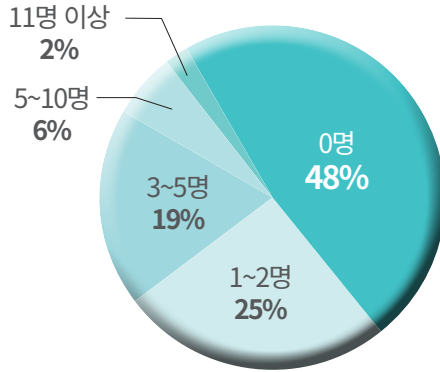
나이, 종교, 성별, 직업 등 상관없이 특별한 자격을 가지지 않아도 누구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동네에 응심이 왜 필요할까요?

① 장애인의 동네 활동은 쉽지 않아요.

지난 1주일간 동거가족 외 만난 사람



동거가족 이외에는
사람을 못 만난
장애인
47.7%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
28.3%

1주일동안
전혀 외출하지
못한 장애인
18.8%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②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예시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판만 있는 경우
-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상점의 점원



- 경사로나가 없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 장애인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기주의



- 발달장애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아이처럼 대하는 경우
- 셀프주문기를 장애인이 혼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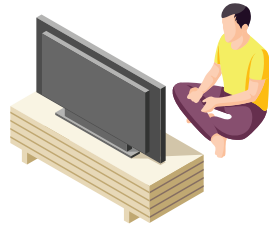
③ 성북구, 우리 동네의 이야기

예시



한번도 혼자 카페에 가본적이 없는
○○씨는 커피가 마시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카페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커피를 마십니다.

예시



혼자 살고 있는 △△씨는 가족도 멀리
살고 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시




독립에 성공한 ◇◇씨, 혼자 지낼 집은
마련했지만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시



□□씨는 예쁜 옷이 사고 싶어
옷가게에 갔지만 점원이 쳐다보기만
할 뿐 응대를 하지 않아 그냥 옷가게를
나왔습니다.


5) 어떻게 옹심이가 되고 활동하나요?

 옹심이 홍보 및 모집



 기관 방문 또는 유선연락 후 옹심이 활동 신청




 신청 후 기초교육 수료하여 옹심이 자격증 발급




 장애당사자와 짝궁하기 (기관매칭을 통해)



 옹호활동하며 친해지기



 활동 및 소감 공유하기

6) 옹심이는 짝공과 어떤 활동을 하나요?

옹심이의 활동에는 정답이 있거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분류하자면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옹호활동> → 친구 또는 이웃으로서의 만남

- 쇼핑, 영화관람 등 지역사회시설 이용
- 동네 산책하기
-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 지역모임 함께하기



<공식적 옹호활동> → 특별한 상황에서의 활동



• 금전적 피해

ex) 타인이 장애당사자의 월급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 학대피해

ex) 신체 등 장애당사자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 인권침해 및 차별상황 발생

ex)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각 상황을 담당자에게 알려 담당기관과 함께 지원
⇒ 일상생활부터 법적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옹호활동 진행

7) 응심이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까요?

응심이가 가져야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장애당사자와 협력관계로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주변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장애당사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옹호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시민옹호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역할

시민옹호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BILD, 2002).

- 시민옹호인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 활동가이다.
-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이다.
- 옹호협력관계는 일대일 관계이며, 옹호인은 이용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옹호 문제의 경우에는 한 명의 시민옹호인이 다수의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 옹호관계는 믿음과 비밀보장에 근거한다.
- 시민옹호는 이용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찾아서 알아내야한다. 그러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협력관계는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며 시간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옹호인과 이용자가 원하는 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투입되는 시간은 옹호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옹호체계는 옹호인과 이용자의 짝을 형성하고, 둘의 관계를 지원한다.

-2016 독립적 권익옹호 실천가이드 25~26page 발췌

III

용심으로 성장하기

‘용심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II. 응심으로 성장하기

응심이가 되기로 결심한 당신! 응심이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바로 교육입니다. 응심이 활동을 위한 장애, 인권과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좀 더 즐겁고 유익한 활동을 위해 활동시작 전 꼭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구성내용>

- 권익옹호란?
- 옹호 활동을 위한 관련 법률 이해
- 장애바로알기
- 발달장애 이해하기



1) 권익옹호란?

- 출처 :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강의 교안

활동에 앞서 옹심이로서 진행하는 권익옹호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옹호의 개념

‘옹호’라는 단어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실 평소에 ‘옹호’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옹호’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다양하고 많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 옹호(advocacy)는 변호, 지지, 주장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금 더 확장하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김용득, 윤재영, 이동석, 이호선, 김제훈, 2013).

·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서는 옹호를 “사회정의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직접 주장, 방어, 개입,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영국의 2002년 옹호헌장은 “옹호는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일을 해 나가며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조문순, 2015).

② 권익옹호(권리옹호)에서 권익(권리)이란?

‘옹호’라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옹심이의 핵심활동인 권익옹호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권익을 옹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이 안에서 권익(권리)란 무슨 뜻일까요?

<권익(권리)>

- 모든 사람은 존경되고 경청되어질 권리
-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권리
- 동일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와 기여의 가능성을 가질 권리

③ 권익옹호활동이란?

그럼 위와 같이 설명된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일까요?

<권익옹호활동>

- 삶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
- ⇒ 그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 **반복적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하면 권한강화의 선 순환과정**이 됨.

④ 권익옹호의 종류

권익옹호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8가지 로 옹호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옹호유형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옹호 유형	주요 특징
스스로 옹호 (Do-it-yourself advocacy)	자기 옹호	장애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개인 또는 집단)
	집단 옹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집단에 의한 옹호
외부 옹호 (Outsider advocacy)	시민 옹호	장애인과 옹호인간의 장기적인 관계
	동료 옹호	옹호인이 지원받는 장애인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동료에 의한 옹호
	전문가 옹호	훈련받고 급여를 받는 옹호인의 단기 옹호
	법률 옹호	옹호인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 및 재정적 관계
	비지시적 옹호	옹호인은 의사소통의 형태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한 장애인을 지원
	전자 옹호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의 옹호를 보완

출처: Boyland & Dalrymple, 2009; 김용득 외, 2013

⑤ 옹심이 사업의 시작

시민옹호사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마다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옹호의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서 시작함.
- 네덜란드,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발달. 현재는 권익옹호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개념임(Bateman, 1995).
- 시민옹호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람과 일반시민이 협력관계를 발전 유지시키면서 형성됨.
- 복지제공 전달체계의 변화이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시민이 개입하고 대등한 관계 속 상호주체성을 지님.
- 다른 사람을 위한 옹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발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집되어 시민 옹호인이 되며 시민옹호인은 옹호 체계의 직원들에 의해 지원, 감독, 훈련을 받음.
- 이용자와의 관계가 발전해 감에 따라 시민옹호인은 옹호가 필요한 사람의 선택, 바람, 이익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을 자신의 일처럼 수행함.

⑥ 옹심이 사업의 필요성

옹호란 무엇인지, 권익옹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옹심이가 왜 지역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옹심이 사업의 시작 배경>

-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발생
- 재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
- 장애인에게는 권익옹호 및 인권단체의 문턱이 높음
- 복지관 및 행정기관에서는 밀착적 옹호가 어려움

⑦ 옹심의 역할

옹심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표에 나타난 내용 외에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함께 동네에서 활동하며 일상생활 속 옹호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함.
(친구 + 옹호자)
-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 침해와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며 지원하는 사람
- 지역 내 장애인의 인권, 인식개선에 선도자적 역할 수행
- 시민옹호는 선택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장기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개인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확립하는 것을 돕는 활동임
- 보호적 관점을 지니지 않으며 장애인이 지역에서 주체로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나 지역 내 관계와 체계를 변화시키고 옹호함
-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돕거나, 사례회의에서 대리를 하거나, 개인의 삶에서 변화를 주장하거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

⑧ 옹심으로 가져다줘야 할 것

앞서 설명 드린 옹심이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옹심이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임.
- 옹호 관계는 믿음과 비밀보장에 근거함.
- 시민옹호는 이용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찾아서 알아내야 함. 선택과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됨.
- 협력관계는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며 시간제한을 둘 수 없음.
- 옹호인과 이용자가 원하는 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투입되는 시간은 옹호 관계에 따라 다름.
- 복지관은 옹호인과 이용자의 짝을 형성하고, 둘의 관계를 지원한다.

출처: <http://www.bild.org.uk/about-bild/advocacy/advocacy-types/>



⑨ 옹심이의 차별점

옹심이와 같이 장애당사자와 함께 활동하는 활동보조인, 동료상담가, 자원봉사자와 옹심이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p>옹심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동료관계 · 의사결정시 파트너십 필요 · 지역 내 활동과 참여중심 · 개별적 일상적 인권옹호 · 인권침해 시 모니터링 및 지원기관 연계 · 관계맺음, 상호주체화가 특징
<p>활동 보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고용관계 · 일상생활 활동지원 역할 (옹호인의 역할도 가능) · 의사결정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중요 · 장애인의 욕구별 생활서비스 지원(가사, 목욕 등)
<p>동료 상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동료관계 · 장애인으로서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자립생활에 관한 조언 및 상담함. · 자립생활 실천, 심리적 지지자 역할에 초점 · 주로 탈시설과 자립의 조력자로 기능함.
<p>자원 봉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 · 프로그램, 활동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함. · 무보수로 활동하나 봉사시간이 부여됨.

⑩ 옹심으로 시작되는 사회변화

마지막으로 옹심이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권익옹호’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심이의 활동은

탈시설화,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케어, 자립생활, 정상화 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장애인에게
물리적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옹심이 활동의 확산은
자연스런 장애인복지 실천의 변화이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민의 역할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옹호 활동을 위한 관련 법률 이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 출처 :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강의 교안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장애당사자와 함께 옹심이 활동을 하며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의 이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② 차별 행위의 종류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예) 업무와 관계없이 장애를 사유로 입사 거부한 경우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주는 것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

- 예) 식당 내 보조조건 출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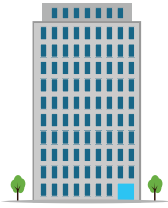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예) 관공서 내 장애인에 대한 점자보도 미설치한 경우

광고를 통한 차별

- 광고나 방송 등의 매체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
예) 뉴스보도의 예: 지난 테러 사건은 인근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④ 차별시정, 구제 담당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인권전담기구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고 있으며, 차별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
- 차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차별 또는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조정 또는 구제조치 권고. (진정신청은 장애인 당사자 및 주변인이 할 수 있음.)

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이행 시 조치

- 인권위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 담당
- 상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 불이행, 피해자가 다수거나 반복적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시정 명령 진행.

- 시정명령 불이행 시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악의적 차별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3) 장애바로알기

- 출처 : 성북장애인복지관 황경희 팀장 강의 교안

① 장애인이란?

장애란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란 ‘병이나 사고, 선천적인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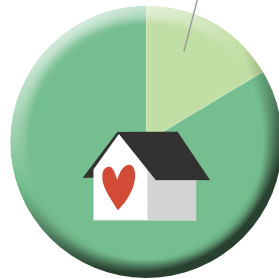
② 우리나라 장애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57만명으로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가구 당 1가구가 장애인가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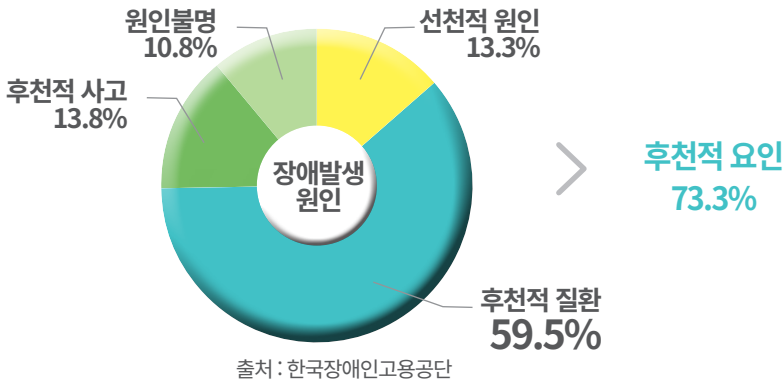


6가구 당
1가구



③ 장애발생원인

장애발생의 원인으로는 사고, 질환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전체의 73.3%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인명사고, 재해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장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④ 우리나라 장애종류

우리나라 장애의 종류는 현재 총 15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각 나라별로 분류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신체적 장애	외부기능장애 · 지체장애 · 청각장애 · 뇌병변장애 · 언어장애 · 시각장애 · 안면장애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장애 ·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명칭

Q.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A. 장애자와 장애우, 장애인 중 올바른 명칭은 무엇일까? ‘장애자’는 놈 자(者) 자를 써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만든 ‘장애우’라는 용어도 올바른 명칭이 아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친구의 관계를 설정한 표현이며 어린사람이 어른에게 친구의 의미인 ‘장애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명칭이다.

Q. 장애인의 반대말은?

A.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다. 그리고 비장애인이라는 말에는 예비장애인이라는 뜻도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애원인 중 후천적 요인은 73.3%를 차지함.)



4) 발달장애 이해하기

- 출처 : 성북장애인복지관 황경희 팀장 강의 교안

응심이 활동을 하며 만나게 되는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발달장애의 종류

지적장애

- 유전적 원인에 의해 또는 질병 및 뇌장애로 인해 지적 기능(지능)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람.
-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됨.

자폐성장애

- 사회성기술, 언어, 의사소통 발달이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보임.
- 상동증(반복행동), 또래에 대한 관심 부족, 놀이행동의 위축, 인지발달 저하

다운증후군

- 염색체 이상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정상적으로 2개 존재해야 하는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여 나타남.
- 특징적인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약 700명 -800명 중 1명꼴로 태어남.

서번트 증후군

- 사회성이 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이 낮으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뇌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기억, 암산, 퍼즐이나 음악적인 부분 등 특정한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증후군.

②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황별 에티켓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놓치기 쉽고 작은 실천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별 에티켓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할 때>

-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행동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움.
- 감정의 표현이 조금 서투른 뿐 비장애인처럼 감정을 느끼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배려하며, 어린이가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처음 만났을 때>

- 먼저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이제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 한꺼번에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실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간결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음.
-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하지 않기.
- 선생님이나 윗사람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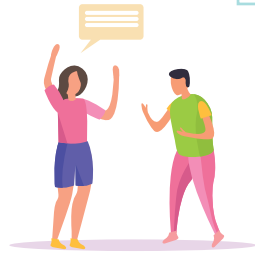
<대화할 때>

- 쉬운 단어로 천천히 짧게 말하며 말을 끝까지 듣기.
-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길게 말하지 말고 순서에 따라 짧고 분명하게 말하기.
- 구체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주는 것이 좋으며, 이해가 어려운 경우 그림이나 동작 등을 동반하면 좋음.
- “하지마”라는 부정어보다는 “~해보자 ” 라는 긍정어로 이야기하기.



<낮선 상황에 처할 때>

-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워 심하게 불안해할 수 있으며,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든가 계속 소리를 내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돌발행동을 보일 경우 분명히 이유가 있으므로 금방 다가서서 제지하지 말고 기다려준 뒤 안정되면 행동의 이유 물어보기.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할 때>

-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 언어적 주의만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III

옹심이로 활동하기

‘옹심이’로서 짝꿍과 만났을 때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까요?

III. 응심으로 활동하기

응심이로서 위와 같은 기초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매칭 된 짝공과 함께 자유롭게 활동을 구성하여 만남을 진행하면 됩니다. 활동에 있어서도 몇 가지 계획과 작성할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계획 세우기

짝공을 만났다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바로 다음 만남에는 무엇을 할지 정하면 활동하기 좀 더 쉬워지겠죠?
아래와 같이 활동지에 직접 기록하면서 계획하면 더 좋습니다.

응심이와 나의  리스트	
1.	달성여부 (O/X)
2.	
3.	
4.	
5.	

하고 싶은 활동, 가고 싶은 장소 등 꿈 리스트를 작성하고 달성여부를 표시해보세요!

  전북장애인복지관

① 활동유형 : 어떤 만남을 진행했는지 체크

- 집에 가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활동 ⇨ 만남
-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 유선상담
- 병원, 주민센터, 은행 등 이동, 의사소통 지원 ⇨ 지역사회이용
- 그 외 활동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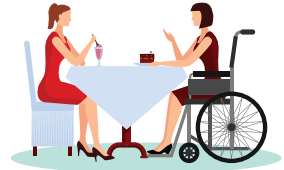
② 권익옹호 : 활동 시 옹호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기록

예시)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미용실을 함께 갔는데 미용사가
“어차피 못 보는데 머리 스타일이 중요한가요?”라고 하였다.



③ 활동내용 :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함께 한 활동은 무엇인지 작성

예시) 오늘은 짝꿍이 카페에 가고 싶다고 하여 함께 카페에 방문하였다. 직접 먹고 싶은 음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어떻게 지냈는지 한참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④ 느낀점 : 옹호의 관점으로 바라본 부분 작성(제일 중요한 부분!)

예시) · 점자메뉴판이 가게에 없는 게 당연한걸까?
· 휠체어를 이용하는 친구와 갈 수 있는 식당이 너무 적다.
·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못 찾겠다고 하더라. 알고 보니 영어로 된 간판이어서 카페를 못 찾았던 것이었다.



3) 옹호활동하기

옹호활동의 종류나 내용은 다양합니다.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단계로 나누어 옹호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차근차근 활동한다면 옹호활동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 단계

- 연락하기
- 집에 방문하기
- 안부 묻기
- 주변 관찰하기



02 단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주기
- 일상 속에서 차별상황 발견하고 옹호하기
- 주변 환경 안에서 차별상황 없는지 관찰하기



03 단계

- 금전적인 인권침해 상황 등 발생 시 전문기관에 연계하기, 옹호자 역할하기

4) 활동 사례

실제 옹심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옹심이와 함께 만나 활동하였던 짝공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만큼 자주 만나고 먼저 연락하면서 편하게 다가가니 먼저 연락도
해주고 만났을 때도 ‘이모님~’하면서 반겨주어 활동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짝공이 가족이나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됐어요.
막상 만나면서 제가 꼭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있어요.



이전에는 짝공이 자신을 ‘재수 없는 놈’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행사 같은 데에서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보면서 정말
변화가 나타났다고 느껴져서 뿌듯했어요.



저의 짝공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저랑 계속해서 만나고 활동하면서
우울증 약용량을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실제 옹심이 활동을
하면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보람을 느꼈어요.



옹심이 활동을 통해 제일 크게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장애인도 나랑 같은 사람이고 조금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너무 열지 않아 포기하고 싶기도 했는데 포기하면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만남을 거절당한 적도 있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친한 이웃으로 저를 꼽았고,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카드도 받으면서 마음을 열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했었어요.



제 짝꿍은 제 자녀와 동갑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같은 걸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 거부감을 가지면 어떡하지라곤 걱정했었는데 잘 따라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시각장애가 있으면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외출을 많이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좋아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상대방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서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짝꿍은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고 우리 동네에서 잘 적응해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 친구들도 소개해주면서 재밌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짝꿍의 이야기 -



경희님은 동네에 알고 지낸 이웃이 없어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응심이를 만난 후 응심이가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소개해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며 옆에서 힘이 돼 주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하고 다양한 복지관 외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좀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리님은 다른 구에서 이사를 오게 되어 아는 사람 없이 낯선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응심이를 만난 후에는 카페에서 수도도 떨고 함께 산책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쾌활한 성격이 공통점인 응심이와 짝꿍은 매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향준님은 20대의 청년이지만 취미 활동 하나 없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주로 여가시간을 보냈습니다. 응심이와의 만남 후에는 목공이라는 활동을 함께하며 새로운 취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응심이와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향준님은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현님은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혼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혼자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상처가 크다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응심이를 만난 후 밖에서 함께 장도 보고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검님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주로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좀 더 활동적인 취미활동을 원했던 다검님에게 공방을 운영하는 옹심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분야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옹심이와 함께 활동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등 이제는 여유롭게 활동을 즐기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희님은 가족관계가 모두 단절되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했습니다. 집 가까이의 옹심이를 만난 후에는 이사도 함께 하고 일상도 함께 하며 ‘함께’라는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옹심이와 좀 더 친해진 후에는 ‘엄마’, ‘이모’라고 부르며 새로운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윤경님은 혼자 자녀3명을 키우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양육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많은 옹심이를 만나게 되어 양육에 대한 팁도 듣고 인생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경님은 새로운 엄마가 생긴 것 같다고 표현하며 지금도 즐겁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형님은 산책을 좋아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 늘 활동보조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옹심이를 만나게 되어 지금은 옹심이와 산책하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주연님은 여가시간에 친구와 맛집을 가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친한 이웃이 없어 하고 싶은 취미활동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옹심이를 만난 후에는 함께 맛집 탐방을 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람님은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람님은 일이 끝난 후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옹심이를 만난 후에는 육아에 대한 고민도 털어 놓고 동네에 있는 카페도 이용하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5) 옹호 사례

옹심이와 짝공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있었던 옹호 중 함께 공유하면 좋을 몇 가지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짝공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이삿짐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모두 짝공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옹심이가 이삿날에 맞춰 사회복지사보다 더 먼저 짝공의 집에 가서 함께 이사를 도왔습니다. 이사를 돕는 것뿐 아니라 혼자 살아가면서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생활에 대한 팁도 알려주며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닌 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옹호해 주었습니다.

짝공은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타 이용인(동료)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침 옹심이가 이러한 상황을 보았고 짝공을 대신해 대변해주는 옹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짝공이 휴식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짝공이 정당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옹호하였습니다.

짝공이 오래 알고 지낸 주변인으로부터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침해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옹심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옹심이는 적절하고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복지관에 의뢰 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에 대해 직접 안내하며 옹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짝공과 옷을 사기 위해 옷 가게에 방문하였을 때 점원이 응대를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짝공이 이러한 상황에서 점원에서 먼저 말을 거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옹심이가 바로 점원을 불러 짝공이 취향에 맞는 옷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

6) 옹호를 통한 변화

실제 활동이야기를 들으니 옹호활동이 어떤 것인지 더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나요?
그럼 이러한 옹호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① 장애당사자의 넓어진 활동범위

- 옹심이와 만나며 카페, 옷 가게, 식당, 부동산 등 다양한 곳을 이용하게 되었고 나들이, 요리 프로그램, 일자리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옹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짝공이 ‘집 안’이 아닌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②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

- 옹심이 활동을 통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옹심이의 주변사람도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옹심이가 짝공에게 주변인을 소개해주어 장애당사자의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③ 물리적 환경변화 유도

-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볼라드, 도보 등 편의시설 조사를 통해 옹호활동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당사자의 편에 서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변화를 직접 찾고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7) 옹심이의 다양한 활동

① 지역사회 환경조사



무장애마을모니터링단과 함께한 도로환경 조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 날 행사 부스운영

② 간담회



월 정기 간담회를 통한 활동 공유

③ 기관방문 및 자문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기관방문



전문가 자문

④ 교류활동, 나들이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나들이



교류활동



송년회



장애바로알기

8) 옹심이에게 묻다(Q&A)

① 옹심이에 참여하신 계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 저는 복지관 개관 때부터 강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하게 활동했어요. 오랫동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장애인과 만나는 게 어렵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옹심을 알게 되었고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 어렸을 적 장애인이 바로 앞에서 발작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옹심이 활동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점차 과거의 두려움은 갑작스러운 발작을 목격한 놀란 마음 때문이었지 장애인으로부터 생긴 두려움은 아니었다는 저의 편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짝공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나도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② 옹심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 주변에서 장애인이랑 활동하면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냥 친구 만나는 것처럼 하고 특별하게 준비한 거 없다고 대답해주었어요. 짝공의 경우 말도 많이 없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데 그때 한번 집들이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뻐던 것 같아요.
- 짝공이 처음에는 정말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맛집도 다니고 쇼핑도하고 연락도 하면서 친해지니 이제는 먼저 밥 먹으러 가자고도 말하고, 어느 날은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라고 말해준 순간 우리가 정말 친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③ 응심이 사업에 참여한 전/후 변화한 점이 있는지?

- 활동지원사로 오랫동안 일해서 장애인과 만나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스스로 못 한다고 생각해 간섭을 많이 했는데 활동하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이전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게 당사자나 사회적 차원에서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선이 스스로 많이 변화되었고, 응심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삶이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④ 인권침해 등 옹호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 짝공과 외부활동으로 영화를 보고 옷을 사주려고 옷가게에 갔습니다. 점원들이 짝공을 보고도 아무도 눈이 마주쳤는데도 오지 않고 반응이 없어서 직원들을 직접 불러서 어울리는 옷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와 짝공이 키가 많이 차이나다보니 주변 시선이 쏠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먼저 짝공을 소개해주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시선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관심 안에서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변인의 과도한 개입을 알게 된 후 사회복지사와 논의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해결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옹호를 해주었던 상황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9) 짝궁에게 묻다(Q&A)

① 옹심이와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 유람선타고 놀러 갔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유람선을 처음 타봐서 기분이 좋았고 한강도 처음 가봐서 신났던 것 같아요.
- 제가 가고 싶었던 맛집에 함께 갔던 게 제일 좋았습니다. 매일 보면서 가고 싶었었는데 아직 혼자 갈 용기가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옹심이 선생님이 먼저 어디가고 싶은지 물어봐주시고 같이 가자고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이사를 했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는데 그때 옹심이 선생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날 정말 기분도 좋고 사람들을 내 집에서 대접했다는 게 뿌듯해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② 옹심이를 만나기 전/후로 변화한 점이 있는지?

- 이사 오고 나서 만날 사람이 없었는데 옹심이 선생님 만나면서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옹심이 선생님이 제 고민도 들어주시고 친구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 같이 맛있는 것 먹는 것도 좋고 제가 원래 혼자 하던 것들을 같이 하는게 제일 좋아요.
- 어려운 상황에서 옆에서 용기도 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어서 옛날보다 더 용기가 생겼어요.
- 저에게 간섭이 심하던 이웃인 이모에게서 벗어나 줄 수 있게 복지관에도 말해주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줘서 지금은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IV

참고자료



‘응심이’로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공유합니다!

IV. 참고자료

1) 스몰스파크 소개

스몰스파크는 옹심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옹심이의 경우 보통 1:1 관계로 활동한다면 스몰스파크는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① 스몰스파크는 어떤 사업인가요?

: 스몰스파크란 작은 불꽃이 모여 마을을 밝힌다는 의미로 장애·비장애 통합 활동을 통해 장애·비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스파크는 장애·비장애 통합 모임을 대상으로 모임활동을 지원하며 장애당사자가 비장애인과 활동을 통해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스몰스파크는 누가 참여하나요?

: 스몰스파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통합모임으로서 4명(장애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스몰스파크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영화관람, 맛집탐방, 전시관람, DIY모임, 마라톤 등 같은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주제든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④ 스몰스파크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 주변에 알고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들과 함께 모임을 구성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기금배분심사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최종선정이 되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옹심이 ↔ 스몰스파크 연계 사례

옹심이 활동을 하며 스몰스파크에 관심이 생긴 참여자가 스몰스파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옹심이 활동을 시작한 □□씨는 스몰스파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보게 되었고 주변 친구와 친구가 알고 지내던 장애당사자와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씨는 짝궁이 함께 모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짝궁에게 모임을 제안하였고 기뻐하며 모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씨의 짝궁은 스몰스파크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재미있는 취미활동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옹심이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된 ○○씨는 옹심이와 함께 카페를 이용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된 활동들에 큰 흥미를 느낀 ○○씨는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스몰스파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과의 만남 안에서 디퓨져만들기라는 새로운 활동을 하며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쁘게 만든 디퓨져는 옹심이에게 선물해주기도하고 집을 장식하며 향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3) 장애인 학대신고

옹심이 활동을 하며 짝궁에게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현황, 유형, 신고방법 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장애인 학대란?

- 정의 :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학대유형

: 학대의 유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착취

5. 유기·방임



② 학대사례

사례 1

-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 씨가 밥을 먹으며 머리를 흔들자 활동지원사가 수저로
- 씨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사례 2

- 보험설계사 ■■씨는 ●●씨에게 접근해서 5년간 78개의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 씨는 보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지만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해야 했고,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 씨는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냈습니다.

사례 3

- 장애인복지시설장 ○○씨는 이용인△△씨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노래를 계속 틀어달라고 조르자 전기충격기로 스파크 소리를 내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 또한 다른 피해자 ▽▽씨에게도 20~30분간 전기충격기로 스파크 소리를 내 겁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장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③ 신고방법

- 옴심이 활동 중 장애인학대 상황을 알게 된다면 바로 복지관에 알려주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112)에 대한 신고는 신고의무자인 복지관이 함께 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신고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가까운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우편 등도 가능합니다.) 신고자,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익명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

이름, 연락처, 신고의무자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소(사는 곳), 연락처, 동거인이나 가족 등 피해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



행위자 정보

이름,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대, 주소, 연락처 등 행위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



학대의 내용

일시, 장소,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자료, 현재 학대의 지속여부 등

<참여위원>

-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진우
- 성북장애인복지관 과장 이현철
- 성북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과 팀장 황경희
- 성북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 서나현
- 성북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 조항준
- 성북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 서주현
- 성북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 송다검

<자문위원>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

<편집위원>

- 성북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 서나현

<참고문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7. 「독립적 권익옹호 실천가이드 II」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19. 「일상에서의 옹호를 시작하기 위한 지침서」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0. 「시민옹호 사업 실무자를 위한 실천 도움서」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0. 「시민옹호인을 위한 활동 도움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발행처 성북장애인복지관

주소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0

전화 : 02)915-9200

팩스 : 02)915-9207

홈페이지 : sb.sgwon.or.kr

이메일 : sgwsb@hanmail.net

발행일 2020. 11.
